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희망본부 팀장 T. 02-723-5303

시행일 : 2015. 3. 25.(수)

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총 2매)

---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이와 같은 조직적 방해에 대한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소비자의 증언과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촉구, ▲검찰에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설명 드리  
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

■ 일시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흥플러스 본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흥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관련 설명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흥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관한 피해자 발언 - 홍명근, 김포시민

○ 대규모 피해 관련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검찰 정보공개 요청 등 향후 대응계획 -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